

2015

가을호

—
vol.16
—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Persuasion &
Rhetoric Report

- 당사자의 심리적 저항과 조정인의 설득 전략
- 갈등을 증폭시키는 성격장애의 유형과 대응방안
 - 페리클레스의 추도사에 나타난 소통의 지혜
- 밀양송전탑 건설사례로 조명한 갈등조정 의 전개과정과 반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Persuasion & Rhetoric Report

발행인 | 박용상
편집인 | 권우동
발행일 | 2015년 9월 1일
등록일 | 2013년 2월 21일
등록번호 | 서울중.바 00163
발행처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편집실무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
TEL. 02-397-3114 FAX. 02-397-3049 홈페이지 www.pac.or.kr
디자인·제작 | (주)계문사 (02-725-5216)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당사자의 심리적 저항과 조정인의 설득 전략	1
이 현 우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Ⅰ. 오메가 전략	3
Ⅱ. 저항 전략의 유형	4
Ⅲ. 오메가 전략기반 설득기법	6
■ 갈등을 증폭시키는 성격장애의 유형과 대응방안	15
장 성 원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사무소장)	
Ⅰ. 들어가며	17
Ⅱ. 성격장애의 개념, 특징 및 원인	18
Ⅲ. 성격장애의 유형과 유형별 대응방안	20
Ⅳ. 조정에서의 성격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24
Ⅴ. 맺으며	27
■ 페리클레스의 추도사에 나타난 소통의 지혜	29
이 상 철 (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	
Ⅰ. 서론	31
Ⅱ. 페리클레스 추도 연설의 배경	32
Ⅲ. 아테네 민주정체의 가치와 이념	33
Ⅳ. 말과 업적	38
Ⅴ. 결론	40

■ 밀양송전탑 건설사례로 조명한 갈등조정 의 전개과정과 반추	43
이 선 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Ⅰ. 밀양갈등조정위원회	46
Ⅱ. 제도개선추진위원회	53
Ⅲ. 종합결론	57

당사자의 심리적 저항과 조정인의 설득 전략

이 현 우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I. 오메가 전략

II. 저항 전략의 유형

III. 오메가 전략기반 설득기법

1. 심리적 저항을 역이용하는 청개구리 기법
2. 시간과 저항의 함수 관계
3. 자아 개념을 이용하는 라벨링 기법

당사자의 심리적 저항과 조정인의 설득 전략

조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정인의 설득 능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만만치 않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된다. 설득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득에는 저항이라는 반작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설득이 쉽다는 말은 저항이 적다는 말과 동일하다. 반대로 설득이 어렵다는 말은 저항이 크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의 심리적 저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득을 통한 분쟁 조정이란 목표 달성은 ‘미션 임파서블’이 되고 만다. 이 글에서는 설득하려는 메시지에 반박하는 상대방의 저항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득 기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I. 오메가 전략

설득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알파 전략과 오메가 전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전략이 존재한다. 먼저 알파 전략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접근법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제안이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설득 메시지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거나 매우 매력적인 정보원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반면에, 설득 전략의 두 번째 유형인 오메가 전략은 상대방의 저항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접근법이다.

알파 전략과 오메가 전략은 설득의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하는 데 각자 독립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설득의 최종 결과는 알파 전략과 오메가 전략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득의 결과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설득의 결과=메시지 파워(알파의 영역) - 저항의 크기(오메가의 영역)

알파 전략은 저항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메시지 파워를 높이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보원의 신뢰도를 높이고, 메시지의 설득력을 높이는 다양한 종류의 노력을 우리는 알파 설득 이론이라고 부른다. 한편 메시지 파워를 키우지 않고서도 상대방의 저항을 줄여서 설득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들을 우리는 오메가 설득 이론이라고 부른다.

돌라드와 밀러(Dollard & Miller)의 접근-회피 갈등 모델(Approach-Avoidance Conflict Model)은 알파 전략과 오메가 전략의 관계 역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¹⁾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우리의 행동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접근의 동기가 더욱 활성화돼 우리를 목표 근처로 이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에 거의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회피의 동기가 매우 활성화되면서 우리를 멈추게 만든다. 이러한 주장을 조정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조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파 설득 전략이 효과적이지만 조정의 합의안 도출 단계에서는 반대로 당사자의 저항을 극복하여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오메가 설득 전략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오메가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II. 저항 전략의 유형

저항이 설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인식은 설득 연구자들로부터 하여금 사람들이 저항의 도구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의 유형을 찾는 데 학문적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 분야의 대표 연구자인 줄리아 잭스와 킴벌리 캐머런(Julia Jacks and Kimberly Cameron)에 따르면 우리들은 저항의 목적으로 최소한 일곱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²⁾ 그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한다.

1) Dollard, J. and N. E. Miller, 1950,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McGraw-Hill).

2) Jacks, J. and K. Cameron, 2003, "Strategies for Resisting Persuas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5, no. 2, pp. 145-161.

첫째, 반론 제기(Counter-Arguing)는 자신을 설득하려는 메시지의 논리에 직접적으로 반박 논리를 제시하면서 저항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영양과잉으로 사람들을 살찌게 한다는 메시지에 대해 하루 세 끼 먹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 끼를 통해 섭취하는 총열량이 문제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반론 제기라고 한다.

둘째, 태도 강화(Attitude Bolstering)는 설득 메시지의 논리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자신의 기존 태도를 강화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저항하는 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남한과 북한 간 감정의 골이 깊어서 남북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서 간 통일을 훌륭히 성취한 독일의 사례를 들어 남북통일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생각을 고수하는 전략을 태도 강화라고 한다.

셋째, 사회적 증거 제시 전략(Social Validation)은 자신의 기존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저항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또래 집단의 압력에 자신과 친한 친구들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전략을 말한다.

넷째, 정보원 폄하(Source Delegation)는 자신을 설득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을 비난하거나 정보원의 신뢰성이나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전략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자신의 생각만이 세상에서 가장 옳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멍청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전략이다.

다섯째,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는 설득 메시지에 대해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응해 저항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별 kick 화를 내면서 “그딴 소리들은 고려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라고 거칠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부정적 정서 전략이라고 부른다.

여섯째,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은 자신이 설득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거나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신문이나 잡지를 아예 구독하지 않거나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과는 아예 만나지도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존 태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공표(Assertions of Confidence)는 자신의 생각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미리 선언함으로써 저항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설득하려는 사람에 대해 “자유와 평등에 대한 내 생각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선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저항하는 전략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잭스와 캐머런은 앞에 소개한 일곱 가지 유형의 저항 전략들 중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³⁾를 진행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저항 전략은 메시지 대응 전략인 반론 제기와 태도 강화 전략이었다. 반면에 사회적인 관계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인 정보원 폄하 전략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저항 전략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조정 환경에서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저항 전략을 가장 선호하고 또한 어떠한 전략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저항의 심리를 역으로 설득에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오메가 전략기반 설득기법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한다.

Ⅲ. 오메가 전략기반 설득기법

1. 심리적 저항을 역이용하는 청개구리 기법

설득에도 갑과 을이 있을까? 물론이다. 설득을 하는 사람은 갑의 입장이고 설득을 당하는 사람은 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을은 갑이 하는 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다. 이 점에 최초로 주목한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 잭 브렘(Jack Brehm)이다. 그는 1966년에 심리적 반발 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을 발표하고 최근까지 꾸준히 그 이론의 지평을 넓혀 오고 있다. 브렘에 따르면 설득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일정

3) Jacks, J. and K. Cameron(2003).

부분 상대방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⁴⁾ 예를 들어, 조정인의 합의안을 받아들이라고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설득 메시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최선의 안을 선택하려는 분쟁 당사자의 선택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당사자들은 심리적 반발을 느끼고, 이 심리적 반발의 크기에 따라 조정인의 설득 성패가 갈리게 된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반발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브렘은 위협 당한 자유를 되찾기 위한 다양한 현상들이 심리적 반발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사람들은 설득 메시지를 무시하게 된다. 흡연자들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금연 메시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흡연의 폐해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메시지도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을 깎아내리게 된다. 자신의 자유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복 자율화 이전 시대에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재거나 남학생들의 두발 상태를 규제하는 체육 선생님들이 인기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셋째로 자유가 침해된 행동 대신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식당에서 어린이들에게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면 자유를 침해당한 아이들은 식당 바닥에 누워 구르곤 한다. 다른 종류의 행동을 통해 자기 통제와 자기 결정권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브렘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동의 자유가 위협 당하게 되면 그 자유를 복원하기 위한 동기가 유발되어 그 행동을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원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더욱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더욱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오히려 담배를 찾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부메랑 효과라고 부른다.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된 행동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부메랑 효과를 역으로 이용한 설득 기법을 우리는 청개구리 기법(Reverse Psychology)이라고 부른다.⁵⁾ 즉, 이 기법은 우리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우리의 심리적 반발을 유발하는 부메랑 효과를 만들어 내는 설득 기법이다.

4) Brehm, J. W., 1966,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Academic Press).

5) 이현우, 2005, 『한국인에게 가장 잘 통하는 설득 전략 24』 (더난출판사).

어렸을 때 들었던 청개구리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청개구리 이야기는 실패한 청개구리 기법의 전형적인 스토리다. 청개구리는 불효자였다. 엄마가 공부하라면 놀고, 일찍 일어나라면 늦잠자고, 일하라면 도망가는 등 모든 것을 엄마 말씀의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러다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다. 엄마는 아들 청개구리가 평생을 자신의 말과는 반대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자신의 묘를 강가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리하면 아들이 자신을 산속에 묻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서(다시 말해 부메랑 효과를 기대하고서) 말이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돌아가시자 마침내 철이 들었다. 그리하여 평생 처음으로 엄마 말씀대로 엄마를 강가에 묻어 주었다. 결국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소원을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청개구리 기법은 부메랑 효과를 기대하고서 자신이 내부적으로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요구를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실행해야 한다. 청개구리 기법은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에 분명히 심리적으로 반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때 인터넷 배너 광고 중에서 최고의 클릭수를 기록했던 “이곳을 누르지 마세요”라는 광고 메시지처럼 말이다. 만일 분쟁 당사자들이 자존심이 세고 권위 의식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청개구리 기법은 저항심리를 역이용해서 설득에 성공하게 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2. 시간과 저항의 함수 관계

시간은 설득에 대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후회 이론(Regret Theory)에서 시간과 설득시도에 대한 저항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한다. 그중 어떤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았고 어떤 결정은 나쁜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나쁜 결과를 낳게 되면 사람들은 후회하게 된다. 살아가면서 후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후회 이론(Regret Theory)은 후회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하려는 학문적 체계다. 후회 이론은 철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지만 설득과 저항의 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심리

학 분야의 반(反)사실적 사고(Counter-Factual Thinking) 관련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사실적 사고 연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건들이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했다라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등의 대안적 결과와 자신의 선택을 비교함으로써 평가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실제로 벌어진 사건’과 상상에 의해 구성된 ‘혹시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사건’을 비교한 결과로 발생하는 후회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회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고 한다. 첫째는 어떤 결정이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고려이고, 둘째는 만일 자신의 결정이 잘못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되는 후회에 대한 고려다. 만일 자신의 현재 결정이 잘못된다면 미래에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믿는 상황에서 대체로 사람들은 외부의 설득 압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 반사실적 사고 관련 연구의 주장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조정인이 제시하는 합의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예상되는 최상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관점을 합의안 거절 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가 가져오는 후회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득한다면 당사자들의 저항은 손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미래의 후회에 대한 고려가 설득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미래’라는 시간 변인 그 자체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저항을 무력화하는 설득 도구로서 ‘미래’의 힘을 보여주는 세 가지 유형의 연구들을 소개해 본다.

첫째, 스티븐 셔먼(Steven Sherman)은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요청을 하는 대신, ‘만일 누군가가 미래에 어떤 요청을 해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수용자의 저항과 반발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⁶⁾ 구체적으로, 셔먼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위해 만나질의 시간을 낼 수 있는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 요청에 대한 승낙률은 불과 2%였다.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만일 나중에 누군가가 자원봉사를 위해 만나질의 시간을 낼 수 있는

6) Sherman, S. J., 1980, “On the Self-Erasing Nature of Errors of Pre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 no.2, pp. 211-221.

냐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물었다. 질문을 바꾸자 학생들의 40%가 자원봉사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2주 후에 동일한 학생들에게 자원 봉사에 대한 요청을 하자 38%가 그 요청을 수락했다.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당장 실행해야하는 자원봉사 요청과 비교해 봤을 때, 미래의 ‘가상적인’ 행동에 대한 예측은 수용자의 선택에 상대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외부의 설득 시도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저항과 반발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수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둘째, 심리학자들은 미래의 가상행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⁷⁾ 연구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자신이 케이블방송 서비스를 구매해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케이블방송 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러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케이블방송 서비스의 혜택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승낙률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설득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즉각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미래에 그러한 행동을 실행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승낙률은 현저히 높아진다고 한다. 백화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금 구매하시고, 결제는 6개월 후에 하세요” 식의 설득 전략은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다. 왜 이처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요청에는 저항하지 않고 관대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시간 구성 이론이 그 답을 제공하고 있다.

리버만과 트롭(Liberman and Trope)은 시간 구성 이론(Temporal Construal Theory)을 통해 두 가지 종류의 미래 유형을 제시한다.⁸⁾ 근거리 미래(Near Future)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미래의 시간을 말하고 원거리 미래(Distance Future)는 현재의 상황에서 독립적인 미래의 시간을 지칭한다. 시간 구성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미래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7) Gregory, W. L., R. B. Cialdini, and K. M. Carpenter, 1982, “Self-Relevant Scenarios as Mediators of Likelihood Estimates and Compliance: Does Imaging Make It S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3, no. 1, pp. 89-99.

8) Liberman, N., and Y. Trope, 1998, “The Role of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Considerations in Near and Distant Future Decisions, A Test of Temporal Constru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5, no.1, pp. 5-28.

그리하여 원거리 미래 관련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근거리 미래 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원거리 미래 관련 사건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바람직한가의 관점에서 평가하지만 근거리 미래 관련 사건은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거리 미래에 실행을 요구하는 요청은 근거리 미래에 실행을 요구하는 요청에 비해 본질적으로 저항이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원거리 미래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중간고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에서 어느 시험을 더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기말고사라고 답할 것이다. 원거리 미래의 시험은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그동안 시험에 잘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낙관적 편견에 의해 충천해 있기 때문이다.

3. 자아 개념을 이용하는 라벨링 기법

자기 가치 확인 이론(Self-Affirmation Theory)은 설득에 대한 저항의 근원적인 동기로 자아 개념(The Self-Concep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 개념, 가치관, 그리고 태도들이 안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자아를 공격하거나 자아의 변화를 요구하는 외부의 위협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 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저항하게 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설득 메시지를 통해 기존의 자아 개념을 강화시켜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서 소개할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은 자아 개념의 강화를 통해 사람들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잭스와 오브리언(Jacks and O'brien)은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을 설득의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⁹⁾ 그들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9) Jacks, J. Z., and M. E. O'Brien, 2004, "Decreasing Resistance by Affirming the Self," *Resistance and persuasion*, pp.235-257.

자기 가치 확인 이론, 그리고 설득과 저항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 첫째, 실험 조작에 의해 자기 가치가 확인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코헨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처럼 자기 가치를 확인한 사람은 자신의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외부 메시지에 대해 덜 방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였고, 정보원에 대해 덜 편향적으로 평가하며 나아가서 태도 변화에 대한 저항이 줄었다고 정리하고 있다.¹⁰⁾

실험 연구에서 자기 가치의 확인 조작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특정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게 하거나 혹은 자신이 믿고 있는 특정 가치를 보고하도록 설계된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 가치가 확인되면, 사람들은 자아 개념을 강화해 자신에 대해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대처하게 만든다는 것이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의 주장이다. 그 결과 자기 가치가 확인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외부 메시지에 대한 저항이 약화되어 궁극적으로 설득 당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잭스와 오브리언이 수행한 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에 부합되게 자기 가치가 확인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쉽게 설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 잭스와 오브리언은 실험의 조작으로 확인된 자기 가치와 설득 메시지 주제 간의 관련성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자기 가치 확인의 실험 조작은 대부분 설득 메시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정직함’에 대한 자기 가치를 확인시킨 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평등’에 관한 가치를 주장하는 설득 메시지에 노출시키는 식의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잭스와 오브리언은 확인된 자기 가치와 설득 메시지의 주제 간 관련성이 증가해도 설득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정직함’이라는 자기 가치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평등’에 관련된 설득 메시지와 주제적 관련성이 높은 ‘평등’이라는 자기 가치를 확인시킨다 하더라도 설득 효과가 특별히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10) Cohen, G. L., J. Aronson, and C. M. Steele, 2000, “When Beliefs Yield to Evidence: Reducing Biased Evaluation by Affirming the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6, no. 9, pp. 1151-1164.

그러나 확인된 자기 가치와 설득 메시지가 서로 상충될 때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편견 없음’이라는 자기 가치를 확인시킨 후, 동성애자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주제의 설득 메시지에 노출시키면 사람들은 훨씬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확인되는 자기 가치의 유형과 설득 메시지 주제 사이의 관련성은 매우 중요한 매개 변인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정인처럼 설득을 실제적인 목적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다시 말해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을 어떻게 실질적인 설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자기 가치 확인을 통해 설득력을 증가시키는 도구적 가치를 골드스테인과 그의 동료들이 소개하고 있는 라벨링 기법(Labeling Technique)과 연계해 생각해 보자.¹¹⁾

그들은 영화 <스타워즈(Star Wars)>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제다이의 귀환(Return of the Jedi)>에서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Luke Skywalker)가 다스 베이더(Darth Vader)에게 “나는 당신 안에 아직 선함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 당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 나는 느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을 라벨링 기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일관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설득 기법의 하나인 라벨링 기법은 한 사람에게 어떤 특색, 태도, 신념 등과 같은 라벨을 붙인 다음 그 라벨에 어울리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루크 스카이워커는 다스 베이더에게 선한 사람이라는 라벨을 붙여서 그를 밝은 쪽으로 넘어오도록 설득에 성공해 결국 다스 베이더가 악의 제왕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어 우주의 평화를 되찾게 해서 영화는 해피 엔딩의 결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라벨링 기법의 설득 효과는 일관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의 측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악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스 베이더에게 단순히 선한 사람이라는 라벨을 붙인다고 그냥 단번에 밝은 쪽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자기 가치 확인 이론 관점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동시에 존재한다. 다스 베이더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밝음에 대한 자아 개념을 루크 스카이워

11) Goldstein, N. J., S. J. Martin, and R. B. Cialdini, 2008, *Yes! 50 Scientifically Proven Ways to be Persuasive* (Free Press).

커와의 대화를 통해 재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밝음에 대한 자아 개념이 새롭게 강화된 다스 베이더는,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의 기존 연구 결과처럼, 설득 메시지에 대한 저항이 감소되어 결국 설득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감정적 소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라벨링 기법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선생님처럼 정이 많으신 분은’ 혹은 ‘선생님처럼 공감능력이 뛰어나신 분은’ 등의 감정 차원에서의 자기 가치 확인은 분쟁 당사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훌륭한 설득 기법으로 작동할 지도 모른다. 🌈

갈등을 증폭시키는 성격장애의 유형과 대응방안

I. 들어가며

II. 성격장애의 개념, 특징 및 원인

III. 성격장애의 유형과 유형별 대응방안

1.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D)
2.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D)
3. 반사회적 성격장애(Anti-Social PD)
4. 연극성 성격장애(Histrionic PD)

IV. 조정에서의 성격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1. 적절한 유대관계의 형성(Bonding)
2.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교육(Structure)
3. 현실을 직시시키기(Reality Testing)
4. 선택의 대가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Consequences)

V. 맺으며

장 성 원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사무소장

갈등을 증폭시키는 성격장애의 유형과 대응방안¹⁾

I. 들어가며

요즘 법원 등 각종 공공기관 및 기업 상담실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악성 민원인(고객)’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 ‘갑질’ 고객, 블랙 컨슈머, ‘진상’ 민원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들 중 특히 악쓰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협박하며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실이 아닌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만 사고하는 ‘극단적으로 비합리적인 유형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을 상대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고충과 피해 역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 기존에 나온 다수의 설득 협상 관련 도서²⁾나 법학, 소비자학 분야의 주된 연구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정상인을 가정해 이뤄져 왔다. 주로 언급되는 대응방법은 회피 또는 경고, 협박 또는 공갈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의 법적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³⁾

- 1) 이 글은 필자가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에서 수강한 빌 에디(Bill Eddy) 외래 교수의 「갈등의 심리학(Psychology of Conflict)」 과목의 교재(Eddy, B., 2009, *High Conflict People in Legal Disputes* (HCI Press)) 및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참고자료를 인용 보완한 글임을 밝힌다. 수업자료 및 강의내용에 대해 요약 게재를 허락해준 Eddy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참고로 Eddy 교수는 본인이 명명한 High Conflict People(HCP)을 Personality Disorder(PD)와 구별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PD 위주로 서술하였다. 오랜 기간 미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사회복지사(LCSW) 및 가사 조정 전문 변호사 겸 조정인으로 활동해 온 Eddy 교수가 설립, 운영 중인 컨설팅 기관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www.highconflictinstitute.com/>
- 2) 대표적으로 「설득의 심리학」, 『Getting to Yes』, 『감성으로 설득하라』 등이 있다.
- 3) 예를 들어 악성 민원을 일삼는 소비자(블랙 컨슈머)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모 법무법인과 함께 발간한 『문제행동 소비자 행동유형별 법적 분석』과 같은 매뉴얼이 그러하다.

비교 문화 학자인 홉스테드(G. Hofstede)는 사람의 의식나 행동을 결정하는 변수를 크게 인간 본성(Human Nature), 문화(Culture), 개인의 성격(Personality)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⁴⁾ 이에 근거해 볼 때 일반적인 설득 관련 도서는 주로 합리적인 인간 본성을, 법학 등은 문화의 결과물인 실정법과 같은 사회 제도를 주요 변수로 놓고 고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필자도 경험해 봤지만 위와 같은 비합리적인 유형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일반적인 설득 기법이나 법적 지식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다양한 민원인을 마주하는 분쟁해결 종사자들도 이제 일반적인 인간본성 및 정상 성격 유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상담심리학 중 이상(異常) 심리 내지 정신 의학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개인 차원의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P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본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쟁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성격장애의 특징, 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격장애의 개념은 무엇이며, 성격장애인의 특징과 원인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본 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분류한 대표적인 개별 유형을 고찰하고, 조정인의 관점에서 이들을 대할 때 필요한 단계별 접근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II. 성격장애의 개념, 특징 및 원인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1950년대부터 정신질환 관련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단 기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정신장애 진단과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이하 DSM)」을 발간해 왔다. 이 편람은 의사, 심리학자, 카운슬러 등의 임상수행을 위한 표준 참고문헌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쓰인다고 한다.⁵⁾ 2013년에 나온 최신 DSM 제5판에서는 성격장애를 '정신 질환의 일종이며 여러 맥락에 걸쳐 발현되는 것으로

4) Nazir, A. et al, 2009, "Culture–Personality Based Affective Model," *AI & Society*, vol. 24, no. 3, p. 282, <http://www.macs.hw.ac.uk/~ruth/Papers/agents-affect/NazirEtAl.pdf>(검색일: 2015. 7. 20.)

5) 미국 정신의학회,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권준수 역(학지사), 45쪽 참조

행동, 인지 및 내적 경험의 지속적인 부적응 패턴’으로 정의하고, ‘해당 개인이 속한 문화 기대치에서 현저히 이탈하는 이 패턴은 일찍부터 축적되기 시작해 쉽게 바뀌지 않는 특징을 보이며 (당사자 내부의) 상당한 고통, 무력감과 연관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먼저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과 성격장애는 서로 어떻게 다를까. 양자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신질환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자아 배제적인(Ego-Dystonic) 특징으로 자신의 병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약물, 상담 등 치료를 받기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이에 반해 성격장애는 평소에는 판별이 어렵고(위기 갈등 상황에서 주로 발현), 자아 친화적인(Ego-Syntonic) 특성으로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겨 외부의 도움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치료받기가 어렵고 상담치료 역시 일부에게만 효과가 있어 치료나 개선이 쉽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병증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들과 달리 성격장애인들은 지능이나 재능 및 외모가 뛰어난 경우가 많아 사회적 활동도 왕성하다. 정치인, 최고경영자와 같은 사회지도층, 전문 직종 및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예술·연예계에도 성격장애를 지닌 이들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⁷⁾

다음으로 정상인과 성격장애인은 어떻게 다를까. 정상인에 비해 성격장애인은 건전한 자기애를 발전시키지 못해 ①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착하며, ② 외부의 사소한 일이나 말에도 아주 쉽게 상처받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로 인해 타인을 이유 없이 불신하는 등 대등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대인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서툴러서 나와 남 사이의 균형 있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⁸⁾

구체적으로 성격장애인은 ① 만성적인 심적 고통의 지배, ② 사고의 경직성, 편협성으로 인한 ‘모 아니면 도’ 식의 사고, ③ 작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큰 결론을 내는 과도한 일반화, ④ 극단적인 감정과 언행, ⑤ 책임의 외부화로 인한 무조

6) 미국 정신의학회(2015), 703쪽 참조. 영문 원본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en.wikipedia.org/wiki/Personality_disorder(검색일 2015. 7. 23.)

7) 미국 할리우드 스타 등 해외 유명인들 중 이런 장애를 가진 인물들을 소개하는 책으로, Bandelow, B. 2009, 『스타는 미쳤다(부제: 성격장애와 매력에 대한 정신분석 리포트)』, 엄양선 역(지안출판사) 참조

8) 오카다 타카시, 2014, 『나만 모르는 내 성격(부제: 성격장애-어떻게 함께 지내고, 어떻게 극복하나)』, 유인경 역(모멘토), 207~208쪽 참조

건적인 비난, ⑥ 자신을 무력한 희생자로 봄, ⑦ 타인에게 자기 행동의 정당함을 확인하려 함, ⑧ 과거에 매몰되어 미래를 보지 못함, ⑨ 부정적인 것의 극대화, 긍정적인 것의 극소화, ⑩ 매우 사소하거나 관련 없는 일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 등의 특성을 보인다. 이런 성향은 지속되면서 잘 바뀌지 않는다.⁹⁾

따라서 정상인과 성격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①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극단적인 언행 등 위의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② (남의 피드백을 받고)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지’ 여부라고 한다. 물론 정상인도 경우에 따라 감정이 폭발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때도 있는데, 정상인은 그 빈도도 낮고, 이성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짧은 반면, 성격장애인은 빈도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회복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또한 감정의 지배에 따른 ‘인지 왜곡’ 현상으로 본인의 느낌(감정)에만 의존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만성적인 대인관계 갈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성격장애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주로 영·유아기 및 초기 아동기 때 부모의 학대, 방치 또는 지나친 집착이나 과도한 기대 등 양육 환경의 문제로 보호자와 안정적이고 건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어린 시절에서 못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이나 어릴 때 가까운 가족의 이별, 사망이나 사고, 범죄, 전쟁, 재해 등의 끔찍한 경험 또는 성인 초기까지의 생애 경험 및 주위 문화적 환경 역시 성격장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¹⁰⁾

Ⅲ. 성격장애의 유형과 유형별 대응방안

미 정신의학회의 DSM 제5판에서는 성격장애 유형을 크게 3그룹으로 나누고 총 10가지의 성격장애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A그룹은 정신질환 중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조현성, 편집성 성격장애로 ‘기이하고 별난’ 유형으로 분류되며, C그룹은 의존성, 강박성, 회피성 성격장애로 ‘불안하고 두려운’ 유형으로 나뉜다. 세 그룹 중 B그룹은 경계성, 자기애성, 반사회성, 연극성 성격장애로 ‘극적이고,

9) Eddy, B(2009), 제1장 참조

10) 오카다 타카시(2014), 213-229쪽 참조

감정적이며 예측하기 힘든' 유형으로 분류되는데,¹¹⁾ 가장 갈등이 극심하고 오래 가는 소위 '진상' 성격에 해당하는 그룹이다. 다른 그룹과 달리 어디로 튈지 예측이 어렵고 만성적인 분노 및 비난 감정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불균형하게 형성돼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그룹으로 불린다. 이 글에서는 글의 취지와지면관계상 B그룹의 4가지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만 고찰하고자 한다.¹²⁾

1.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D) : '사랑해줘 그러면 너를 미워할 거야'

경계성 성격장애는 B그룹 중 뒤에서 언급할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함께 가장 흔한 유형이자 그룹 내 다른 유형과 가장 많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경계성 장애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극단적인 기분 변화와 변덕스러운 대인관계 및 자주 나타나는 불같은 분노가 주된 특징이다.

'자기를 도와주는 손을 물어뜯는' 일이 빈번한 이 유형은 구체적으로 ① 유기(遺棄)에 대한 공포가 근처에 있어 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한 필사적으로 노력함, ② 자주 화를 내고 극단적으로 기분이 변화함, ③ 남에게 매달리거나, 남을 지배하고, 유혹하고 이용하려는 속성, ④ 충동적으로 본인을 자해하는 무분별한 행위(낭비, 약물중독, 폭식, 난폭 운전, 성 탐닉 등), ⑤ 가까운 가족, 소송 대리인 등을 이상화했다가 바로 평가절하 함, ⑥ 폭언, 폭행, 소송으로 타인을 공격함, ⑦ 자기 주장의 정당화를 확인받거나 복수하기 위해 남을 이용하는 특징 등을 보이고 있다. 경계성 장애인들의 주된 비난 대상은 가까운 연인, 가족, 동료이거나 경찰, 판사, 검사, 공무원 등 권위 있는 기관 종사자들 또는 변호사, 조정인 등 분쟁해결 전문가라고 한다.

이런 유형을 대할 때는 무엇보다 거리를 적당히 두고 차분하면서 사무적인

11) - 미국 정신의학회(2015) 703-704쪽 참조
 - 각 그룹별 명칭은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Benjamin, S, L., 2014, 『성격장애 진단 및 치료 : 대인관계 접근』, 서영석 외 역(학지사), 33쪽.
 12) 참고로 10가지 유형 중 강박성 장애 유형의 경우 아주 반듯하고 예의바르고 책임감이 강해서 가장 성격장애답지 않으며 헌신하는 배우자감으로 매우 좋다고 한다, 다만 질서와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면 주위 사람들이 숨 막힐 수 있으므로 적당히 포기하고 긴장을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오카다 타카시(2014), 191-201쪽 참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들의 강렬한 감정 폭발에 대해 같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비판하는 등의 과도한 반응은 피해야 한다.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연락 가능한 시간과 불가능한 시간을 미리 정해주는 등 현실적인 경계를 정해주고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일관되고도 예측 가능한 모습을 보여야 이들의 극단적 감정변화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과거에 매몰된 이들의 분쟁이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부드럽게 안심을 시키되, 이들이 분쟁을 떠넘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들과의 관계를 갑자기 끊거나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다.¹³⁾

2.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D) : ‘아기 폐하’¹⁴⁾

이 유형은 본인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규칙이나 규범은 본인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일반인이나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유형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유머를 과시하며 매력적으로 접근하여 초기에는 인기가 많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낸다. 하지만 대인관계가 본질적으로 착취적이므로 결국에는 조직을 망치고 실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조직에서 아래 사람에게는 형편없이 대하면서도 위사람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해 결국 최고경영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독선의 아이콘인 이들이 소송을 걸어온다면 상대방은 타협이나 합의 같은 기대는 접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방에 들어오면 ‘방안의 공기를 혼자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이 유형의 구체적인 특징은 ① 열등함에 대한 두려움이 근저에 있어 끊임없이 남의 관심과 무조건적 동의, 복종, 존경을 요구함, ②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몰두적임, ③ 남에게 특별하고 우월한 대접을 기대함, ④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 내지 반격을 함, ⑤ 타인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업신여김, ⑥ 남의 정당한 요구나 감정에 무감각함 등이다.

이 유형에 대한 대응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면전에서 또는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기분 나

13) Eddy, B.(2009), 제3장 참조

14) Benjamin, S. L.(2014), p.187 참조

빠하므로 만약 이러한 유형의 직장 상사와 함께 일해야 한다면 그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는 등 일정 부분 비위를 맞추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한 옆에서 조언을 할 때에는 조언에 따를 때 얻는 장점과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으며, 경계성 성격장애와 마찬가지로 관계를 갑자기 끊거나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다.¹⁵⁾

3. 반사회적 성격장애(Anti-Social PD) :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이 유형은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캐릭터로,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사회적인 약속인 규칙을 수시로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이 유형은 내적 고통을 외부로 반복하여 발산하면서 결국 본인을 해하고 마는 다른 유형과 달리 남의 고통을 보면 오히려 심적으로 차분해지고 내적 평화를 얻는다고 한다. 성격장애 가운데 유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유형으로 약물치료 등 각종 치료요법으로도 고치기가 가장 어렵다.

여기서 발전하여 소위 사이코패스가 되는 이 유형의 구체적인 특징은 ① 지배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근저에 있어 이를 뒤집고자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함, ② 반복적으로 사회 규칙과 법을 무시, 위반하거나 권위를 경멸함, ③ 공격적인 매력을 발산하면서 그럴 듯한 거짓말로 계속 남을 속임, ④ 남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뺏는 데서 오히려 즐거움을 얻음, ⑤ 죄의식이나 공감의 결여 및 약자에게 가혹한 착취관계 요구 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항상 건전한 회의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매력적인 이들의 주장에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되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서류나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들이 변화하거나 구제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들의 비행이나 탈선적 행동은 부정적 대가가 반드시 수반함을 설명해야 한다. 이들이 위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포감을 느끼는 순간 자신부터 보호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⁶⁾

15) Eddy, B.(2009), 제4장 참조

16) Eddy, B.(2009), 제5장 참조

4. 연극성 성격장애(Histrionic PD) : ‘과장과 호들갑이 내 모토’

만일 1시간이 넘게 상담전화를 했는데도 단지 5분만 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유형이다. 관심의 중심이 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호들갑을 떠는 것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다른 유형과 일부 특징이 겹치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보다는 자신에게 좀 더 해를 끼치므로 다른 유형들보다는 덜 해롭다고 한다. 과장된 감정표현과 극적인 상황연출이 주된 이 유형의 구체적인 특징은 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근저에 있어 항상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함, ② 극적이고 과장된 말과 이야기, ③ 피상적이고 얕팍한 대인관계, ④ 무력한 피해자인 척 연기하기, ⑤ 세부 사실과 집중력의 부재 내지 결핍, ⑥ 관심을 끌기 위한 사실 날조나 거짓말하기 등이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목을 매는 이 유형 역시 건전한 회의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의 깊게 경청한 다음 중요한 과제나 대화 목적에 대해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날조된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되 과장되게 반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 유형은 타인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자기 존중감을 고취시키거나 자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한다.¹⁷⁾

IV. 조정에서의 성격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먼저 조정인으로서 목표는 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무난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사적인 친구가 아닌 ‘전문적인 조인자’가 되어야 한다. 포괄적으로 비판하기, 과거 일을 들어 강조하기, 부정적인 목소리 톤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 표현(보디랭귀지) 사용 등은 이들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제는 그들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이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아

17) Eddy, B.(2009), 제6장 참조

래에서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단계별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적절한 유대관계의 형성(Bonding)

대인관계가 불안정한 성격장애인들은 조금만 자기편으로 느껴지면 자신들의 딜레마 해결을 위해 상대방을 끌어들이려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적절한 유대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들과 건전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분노나 두려움 등의 감정에 차분히 공감하며 주의 및 존중¹⁸⁾을 기울이되, 그들이 말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즉 “참 어려운 일을 겪으셨군요”, “제가 봐도 정말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느낌이실지 이해가 됩니다” 정도가 적절하다.

다음으로는 언제나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들의 변덕스럽고 격렬한 감정에 같이 격해지거나 흥분해서 반응하면 기름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된다고 한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 나만 믿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다음 해결이 불가능하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대하면 이들의 감정적 분노 및 공격을 촉발하게 되므로, 일관된 반응을 보이면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배척하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¹⁹⁾

2.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교육(Structure)

성격장애인들은 타인 또는 분쟁해결 결과에 대한 요구나 기대수준이 너무 높으므로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정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 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임을 계속 일깨워야 한다. 또한 당사자의 역할과 조정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정과 소송 간 관계 및 장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이들은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것을 주장하므로 절차에 대한 확신을 갖고

18) 각각의 영어표현인 Empathy, Attention, Respect를 줄여서 E.A.R. 대응이라고 한다.

19) Eddy, B.(2009), 제8장 참조

규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정 절차에서 집중해야 할 중요한 문제와 사소한 문제에 대해 구별하여 설명해줌으로써 이들이 집중해야 할 중요한 과제나 현실적인 분쟁해결 옵션에 초점을 맞추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판지를 걸거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므로 생소한 법적 절차에 당황해 하는 이들의 고민을 줄여준다면 조정인에게 고마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²⁰⁾

3. 현실을 직시시키기(Reality Testing)

성격장애인들은 ‘감정적 사고’에 능숙해 본인의 감정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므로 이들을 상대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대하되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10억 원 손해배상 전액 인정 등 조정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겠다는 이들의 기대에 대해 먼저 이들의 감정을 인정한 뒤 객관적인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상을 제거시켜야 한다. 이들의 주장 중 감정적 사실이 포함된 극적 주장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라면서 보강 증거를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들의 주위에는 이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보호하며 지지하는, 때로는 이들과 같은 장애를 지닌 ‘부정적 옹호자들’ 또는 가족이라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지만 매일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소수의 정상인만 남는다고 한다. 따라서 주위의 부정적 옹호자들로 인해 이들이 현실을 인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부정적 옹호자인지 정상인인지를 판별한 후, 후자의 참여를 이끌어서 이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²¹⁾

4. 선택의 대가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Consequences)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에 대해 상의하는 조정단계에서 조정인은 판단과 선택은 조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하는 것임을 계속 주지시키고 각 선택마다 어떤 가능한 결과나 대가가 수반되는지를 교육시켜야 한다. 참고로 성

20) Eddy, B.(2009), 제9장 참조

21) Eddy, B.(2009), 제10장 참조

격장애자들이 조정 상대방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할 경우 잠시 생각한 후 “예”, “아니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에 하나로만 대답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들은 조정인을 자기 문제를 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생각하므로 조정인은 반복해서 “저는 판사처럼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선생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뿐입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인으로서 다루기 힘든 문제는 법 규정 또는 정부나 소속 회사 정책상 다를 수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들과의 직접적 대립을 피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이들의 환상이 깨져서 조정인을 ‘무능하다’, ‘편파적이다’, ‘경험이 없다’는 등으로 비난하는 경우에는 맞비난하거나 사과하지 말고 사람마다 조정스타일이 다른 점을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간단히 답변하는 것이 좋다.²²⁾

V. 맺으며

지금까지 필자가 미국 로스쿨에서 수강한 관련 수업 교재 및 내용을 중심으로 미 정신의학회의 관련 편람에 나오는 성격장애의 개념, 특징, 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갈등 관리, 분쟁 조정 및 상담 영역에서 분쟁 당사자 개인 차원의 비정상적 성격 유형과 이들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면서, 이러한 연구와 교육이 민원인(고객) 응대기법 향상뿐만 아니라 직장, 가족 내 분쟁 예방 및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첨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필자 소견으로는 사전 정보가 부재한 최초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란 어려우므로, 내담자의 반응 중 특히 경직된 태도의 존재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담 초기부터 흥분하고 속상해 하는 내담자에 대해서는 먼저 공감, 주의 및 존중 대응기법을 통해 내담자가 차분해지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선례 등 상담자가 사실 정

22) Eddy, B.(2009), 제11장 참조

보를 제공했을 때 극도로 경직되고 편향된 반응을 보이는지 역시 중요하다. 이 두 단계에서 모두 경직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내담자라면 일단 성격장애를 의심해볼 만하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상담직원들은 본인의 업무가 국민 또는 고객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쉽게 감정이입이 되거나 동정을 표하는 성격의 경우 성격장애인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더욱이 이런 성격장애 유형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이들의 매력과 상처, 두려움, 분노에 오인되어 끌려다닐 수도 있다. 따라서 성격장애에 대한 이해와 대응요령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과 아울러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주로 배치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순환 근무를 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글을 읽고 ‘나도 약간 이런 기질이 있는 것 같다’, ‘나도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본인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자각(Self-Awareness) 하는 것이므로 성격장애인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편 가르기, 감정적 대응, 과도한 일반화, 남 탓하기 같은 일부 부적응적 특징(Maladaptive Traits)을 띠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국 반복되는 패턴과 자각 여부 및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페리클레스의 추도사에 나타난 소통의 지혜

이 상 철
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

- I. 서론
- II. 페리클레스 추도 연설의 배경
- III. 아테네 민주정체의 가치와 이념
- IV. 말과 업적
- V. 결론

페리클레스의 추도사에 나타난 소통의 지혜

I. 서론

우리는 흔히 명연설이라고 하면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의 게티즈버그 연설과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1929-1968) 목사의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연설을 먼저 떠올린다. 현대의 많은 명연설은 그리스와 로마의 명연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스피치 학자들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역시 5~6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페리클레스 추도 연설을 273자의 단어로 줄여 놓은 것이라고 한다.¹⁾ 페리클레스는 2500년 전 아테네 장병들의 전몰을 추도하기 위해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의 내용은 물론 배열 구조, 어구, 어휘와 수사 기법은 수많은 현대 연설가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으며 추도 연설은 물론 명연설의 모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피와 땀(Blood and Toil)”으로 헌신하자는 페리클레스의 명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임하는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의 “피, 땀, 눈물, 그리고 노력(Blood, Toil, Tears and Sweat)”이라는 명연설의 기초가 되었으며,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페리클레스의 명구는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1882-1945) 대통령의 취임사인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움(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라는 명연설의 기초가 되었다.

현대 정치인들은 페리클레스가 추도 연설에서 남긴 명언과 명구는 물론 이 연설에서 언급한 민주정체의 우월성, 법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역할, 신에 대한 감사, 선조에 대한 찬사, 전몰자들의 희생정신, 유족에 대한 격려 등에 대한 내용을 연설에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연설에서 강조한 민주정

1) Willis G., 1997. 『링컨의 연설』, 권혁 역(돋을 새김). Willis Gary는 이 저서를 쓰기 몇 십 년 전부터 스피치 학자들은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과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과의 관계를 밝혀왔다.

체의 장점과 이념은 정치학 개론 교재의 1장, 민주주의의 기원을 서술하는 단원에서 거의 빠짐없이 소개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현대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명연설로 평가받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II. 페리클레스 추도 연설의 배경

그리스 도시국가 연맹들은 페르시아 전쟁(BC 492-449)에서 승리한 후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아테네의 지나친 지배와 간섭에 불만을 품은 도시 국가들이 스파르타와 연맹을 맺으며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무려 28년 동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아테네는 전쟁 첫해 겨울인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몰장병들의 첫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 이 장례식에서 페리클레스는 추도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을 투키디데스(Thucydides, BC 460?-400?)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기록으로 남겼으며 당시의 장례 상황도 상세히 전하고 있다.²⁾ 아테네 국장의 전통에 따라 천막 안에 망자들의 시체를 3일간 안치하고 친지들이 제물을 가져와 곡을 하며 묘지로 향했다. 삼나무관에 사체의 유골을 넣고 각 부족 당 운구 수레 1대가 배정되어 당시 10개 부족의 수레 10대가 각 부족의 전사자를 싣고 갔다. 그리고 수습하지 못한 채 행방불명된 전사자들을 위한 빈 삼나무관을 실은 수레 운구 하나가 동행하였다. 각각의 수레는 원하는 희망자가 끌고 그 뒤를 가족과 친지들이 곡을 하며 운구 행렬을 따랐으며 아테네 시외 교외 가장 아름다운 곳에 전몰자들을 안장하였다.³⁾ 흙을 다 덮고 나서 시민들의 추앙을 받는 덕망 있는 인물이 전몰자들을 위한 조사를 바쳤다. 페리클레스는 높은 연단에 올라가 전몰자들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였다.

2) 이 글에서는 박광순, 2011,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상권』 (범우), 170-181쪽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Thucydides, 1954, *The Peloponnesian War* (Penguin Books)를 번역, 활용, 의역하였다.

3) 장지는 우리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아테네시 북서쪽 성벽 밖 케라메이코스(Kerameikos)이다.

페리클레스는 기원전 494년 출생하였으며 461년 민주정당의 대표가 되어 30여 년 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파괴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신전을 복원하였으며 전 그리스 도시국가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형의 유산을 남겼다. 정치인인 페리클레스는 문학, 예술과 철학에도 관심이 많아 당대 지성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하였으며 수사학자인 아낙사고라스와 친분이 두터워 그로부터 수사학을 배웠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고 3년 후인 기원전 429년에 질병으로 사망한다.

Ⅲ. 아테네 민주정체의 가치와 이념

이 연설의 구성은 서론, 아테네 민주주의의 장점과 찬미, 전몰장병들의 업적과 칭송, 그리고 결론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성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숭고한 이념과 가치가 전쟁에 의해 위협 당하자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추도 연설도 같은 배열을 취하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서론에서 연사의 겸손과 진정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낮춘다.

예로부터 이런 장례 연단에 선 많은 연사들은 관례에 따라 전몰장병들을 추도하며 장병들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관례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누워 있는 전몰장병들은 용맹한 행동과 업적 그 자체로 존엄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업적 자체가 명예이며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맹한 행동과 덕행이 연사 개인의 추도 연설이 훌륭하다거나 서투르다고 하여 이를 통해 판단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몰장병들의 삶과 업적을 지나치게 칭송하여도 안 되며 또한 칭송이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장병들을 사랑한 가족이나 친지들은 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로도 그들의 업적과 덕행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바쳐 이루어 놓은 숭고한 업적 앞에 몇 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추도 연설에서 연사의 위치를 겸손하게 낮

추는 기법은 연사와 청중 간 공감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법이다. 스피치 학자들은 연설에서 연사의 위치나 입장을 규정하는 기법을 ‘페르소나(Persona)’라고 한다. 페르소란 주어진 연설에서 자신이 입장이나 위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연사는 자신을 ‘권위’있는 위치로 설정하기도 하고 어떤 연사는 자신의 위치를 ‘선도자’나 ‘계몽가’로 표현하기도 하며, 어떤 연사는 자신을 청중보다 ‘낮은 자세’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정책 관련 연설을 할 때는 국가의 통수권자로 권위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Monica Lewinsky)와의 스캔들 관련 연설을 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낮추며 사과하는 것을 연사의 페르소나라고 한다. 페리클레스는 추도 연설에서 연사의 페르소나에 겸양과 낮춤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추도 연설에서는 망자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연사 자신은 연설의 서론에서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일인칭 ‘I’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낮춤형’ 혹은 ‘그림자’ 페르소나 기법은 이후 추도 연설에 자주 나타난다.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 땅을 일구며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향유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여 평화의 시기에도 전쟁의 시기에도 우리들에게 풍요롭고 역동적인 삶의 자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침공에 승리한 적들의 업적을 여기에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우리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런 내용이 오늘 가장 합당한 주제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추도 연설에서 사용한 어휘나 어구는 후세 정치인들의 명연설에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페리클레스가 언급한 ‘피와 땀(Blood and Toil)으로 일군 이 땅’이란 어구는 윈스턴 처칠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 처칠은 수상으로 취임한 1940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신은 “국가를 위해 피, 땀, 눈물 그리고 노력”을 다 받치겠다고 선언하였고 그의 취임연설은 “피, 땀, 눈물 그리고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명연설의 반열에 올라 있다.

이어 페리클레스는 다음 단락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스파르타의 권위주의와 비교하는 대구법과 대조법을 사용하여 후세 민주주의

이념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치 체제는 다른 나라를 모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정치 체제를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체제의 권력은 소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정치권력이 다수로부터 나온다는 명구는 루소와 몽테스키외의 근대 사상가들의 저서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지도자들의 연설에 단골 메뉴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권력의 원천을 명시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어서 페리클레스는 민주사회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과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사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탁하거나 진급시킬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계층과 같은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릅니다. 또한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난 때문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공공 생활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방식은 우리의 사생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감시하지도 않으며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언짢은 눈초리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사생활은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만 공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법을 준수하며 판사를 존중합니다. 준법이야 말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공공질서를 위한 성문법을 존중하며 또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문율을 지키고 이런 불문율을 어기는 것을 수치로 생각합니다.

페리클레스는 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계층과 같은 ‘신분에 의한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의한 사회’를 만들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 전제라고 주장하였다. 법은 시민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위해 존재하며 또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신분과 계급에 의한 사회가 아니라 능력에 의한 사

회'라고 언급한 페리클레스의 기회 평등에 관한 어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있습니다' 연설에서 '피부 색깔에 의해서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 의해(Not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라는 대구법의 명구로 다시 태어났으며,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평등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인종, 종교, 성별, 국적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확산되었다. 민주사회에서 법은 평등해야 하며 시민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시민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페리클레스는 개방사회와 패쇄 사회를 대조하며 민주정체의 이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일과를 마친 후에 모든 종류의 여가를 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 년 내내 정기적으로 다양한 경연과 제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물품들이 우리나라의 항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세상의 산물들을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풍요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사치에 빠지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유약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가난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대조한 내용은 현대의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 지도자 연설의 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을 통해 시민들이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현대 정치인들의 연설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면서도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난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문은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취임 연설에서 명구의 모태가 된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에 빠져 가난에 절망하고 있을 때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 취임사 서두에서 미국이 겪고 있는 대공황을 가난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뉴딜 정책을 제안하며 취임연설을 하였다. 대공황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이란 명구는 역사가들에 의해 이 연설을 지칭하는 제목이 되었다.

한편 페리클레스는 국방과 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아테네의 개방사회를 스파르타의 폐쇄사회와 대조하며 아테네 민주정체의 이념을 설파하였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국가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비밀을 정탐해 가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외국인들을 추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은 비밀 병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진정한 용기와 애국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는 어려서부터 혹독한 군사 훈련을 받지만 우리는 이런 훈련 없이 자연스럽게 두어도 그들보다 더 위기에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자연스런 재능과 자발적인 용기로 힘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 (중략) ...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법률이나 군기에 의해 강제하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고 태연하게 용기를 갖고 위험을 극복합니다. 일단 전열에 서면 훈련에 시달린 자들보다 훨씬 용감하게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 아테네를 경탄하고 칭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는 참여와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주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토론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조는 현재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우리 시민들은 그들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공직자도 사생활에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몰두해 있는 사람도 공공의 사안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우리는 공공의 사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여유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책을 결정할 때 필수불가결한 비판을 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현명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들은 토론이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미리 토론을 통해 가르침을 끌어낼 수 없는 것이야말로 장애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쁜 결정은 충분한 토론과정 없이 성급하게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IV. 말과 업적

아테네의 가치와 이념을 칭송한 후 페리클레스는 전몰자들은 지하에 묻지만 그들의 업적과 행동은 영원으로 승화시켰다.

이처럼 탁월한 시민들이 있기에 아테네는 위대했으며 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런 탁월함을 경이롭게 보듯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도 경이롭게 볼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한 시민들의 경이로운 행동은 호메로스의 찬미를 인용하여 잠시 귀를 즐겁게 하는 멋진 표현으로 우리를 위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말도 그들이 이루어 놓은 공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육지와 바다를 누비며 용맹한 정신으로 길을 열고 아테네의 성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위대한 아테네를 위해 이 도시를 위해 고귀하게 싸우며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테네를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의 업적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말과 업적이란 대구적 표현은 영어로 ‘Words and Deeds’이며 스피치 관련 저서의 제목으로 자주 활용된다.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페리클레스의 말과 업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세상은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사들이 이곳에서 한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라며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재활용하였다. 그리고 링컨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업적을 행동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페리클레스의 논리를 그대로 활용한다. 링컨은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이곳에서 싸운 이들이 고결하게 추진해온 끝나지 않은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오히려 ... (중략) ...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지구상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로 연설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전

물장병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보다 페리클레스나 링컨이 추도 연설에서 한 말이 우리들에게 더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말의 힘은 행동과 업적의 힘보다 때로 강하기도 하다. 어쩌면 추도 연설에서 한 말에 의해 그들의 행동과 업적이 영원히 함께 기억되는 것이다.

아테네에 관해 이토록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 (중략) ... 살아남은 여러분들은 아테네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켜보시기 바라고 ... (중략) ... 내가 찬양한 이 도시를 빛낸 것은 오로지 여기에 잠든 사람들의 수훈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훈과 예찬이 여기에서 산화한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예는 헬라스 어디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편안히 쉬게 될 사람들의 최후는 먼저 그 덕에 명성을 주고, 이어서 그것을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 목전에 둔 임무를 대담하게 수행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퇴각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보다는 대항하여 싸우다 영광스럽게 죽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 (중략) ... 그리하여 그들은 아테네에 어울리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의 위험이 보다 적어지길 기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나날이 아테네의 힘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 (중략) ... 또 이들 용사들이 아테네에게 준 무상의 보물은 설사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아테네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 (중략) ... 그들은 지하에 묻히고 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과 행동은 영원히 기억되고 우리들의 언화(言話) 속에서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 (중략) ... 무형 무언의 기념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 (중략) ...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은 지금 저 피안(彼岸)에서 초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로 추도 연설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깊은 슬픔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전에는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었던 기쁨이 오늘 이후로는 다른 곳에서 찾아내야 할 때, 여러분은 그 추억에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도 쓰라리지 않지만, 오랫동안 익숙했던 행복을 빼앗기는 것은 고통입니다. ... (중략) ... 끝으로 오늘 이후 미망인이 되는 분들의 부덕에 대해 한마디 언급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짧은 권고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성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말며, 좋은 나쁜 남자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을 무엇보다 금지

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 (중략) ... 여기에 안치된 사람들을 위해 거행되어야 할 의식도 이미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전몰자들과 그 유족에게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아테네가 보증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이곳을 떠나기 전에 전몰자들에 대한 슬픔을 충분히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페리클레스는 연설의 말미에 유가족에 대한 격려를 짧게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여성의 역할을 언급하며 추도 연설 초반에 형성한 겸양과 낮춤의 페르소나를 벗어나 훈시하는 위치에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페리클레스가 미망인이 된 여성들을 격려하지 않고 훈계의 관점에서 말한 것은 당대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당대 여성들은 공적 사안에 대해 참여할 시민의 권리가 없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이 페리클레스의 정부이자 당대 최고의 여성 수사학자인 아스파시아(Aspasia)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 플라톤(Platon, BC 427-347)의 『메넥세노스』라는 대화록에서 아스파시아가 페리클레스의 연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스파시아는 페리클레스의 정부로 페리클레스가 이혼한 이후 동거하며 두 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스파시아의 저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에 자주 언급되며 그리스 당대의 최고의 여성 수사학자로 그리스로마의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다.

V. 결론

투키디데스는 “연설을 기록하면서 ... (중략) ... 몇몇은 내가 직접 들은 것이고 다른 것들은 전해들은 것이다. 내가 직접 들은 것이라고 해도 자자구구 기록한다는 것은 내 기억을 회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학자들은 그가 직접 그 추도 연설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키디데스가 그 연설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은 우리 인류의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사가들은 페리클레스 추도 연설에 대해 정치적 관점에서 당시 아테네의 제

국주의적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델로스 동맹을 중심으로 차츰 제국주의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제국화는 동맹 도시의 이탈과 함께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불러왔고 그리스의 많은 도시국가들이 양분되어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정치학적인 평가이며 연설 평론가들은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이 아테네 민주정체의 우월성에 대한 찬양과 그런 우월성은 전몰장병들의 희생에 의해 세워졌다는 내용 구성은 물론 연설에 나타난 명언과 명구들은 이후 추도 연설의 전범이 되고 있는 훌륭한 연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페리클레스가 강조한 다수에 의한 권력과 소수에 의한 권력 대조, 법 앞에서의 평등, 사생활 보호, 약자 보호, 능력 위주와 신분사회의 비교, 개방사회와 폐쇄사회의 비교, 시민의 자율성, 토론, 문화생활의 중요성 등 아테네의 이상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를 되돌아보게 한다.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은 고대의 훌륭한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연설이다.

아테네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장병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국가를 위해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지향점을 알 수 있다. 6.25 전쟁, 월남 파병 용사, 남북 대치 과정에 전사하는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면 우리 국가 공동체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대사에 지도자는 추도 연설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재규정하며 슬픔에 쌓인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재확립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게 해야 한다. 추도 연설의 목적은 말을 통해 전몰장병들의 육신은 하늘로 보내지만 그들의 업적과 정신은 현 공동체의 가치로 남게 하는 것이다. 슬픔과 절망을 회복하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망자들이 생명을 바치며 추구한 가치를 공동체의 비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추도 연설의 이러한 기능은 전몰장병들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천재지변과 같은 대형 사고를 당했을 때, 지도자는 추도 연설을 통해 슬픔을 정화하고 절망을 회복하며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1986년 2월 1일 챌린저호가 폭발하자 당일 저녁 전국 방송으로 슬픔에 잠긴 공동체를 추도 연설을 통해 위로한 것을 들 수 있으며 가장 최근 사례로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2015년 7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흑인 교회 총기 난사 사고 희생자 추도 연설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말과 연설의 중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약한 우리사회에서 지도자에 의한 세월호 추도 연설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글을 마친다. 🌅

밀양송전탑 건설사례로 조명한 갈등조정 의 전개과정과 반추

이 선 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I. 밀양갈등조정위원회

1. 이해당사자
2. 쟁점
3. 조정목적
4. 진행과정
5. 합의안 및 효력
6.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7. 시사점

II. 제도개선추진위원회

1. 진행과정
2. 구성
3. 목적
4. 산출물
5. 법안 전달 지연 이유
6. 시사점

III. 종합결론

밀양송전탑 건설사례로 조명한 갈등조정 의 전개과정과 반추

밀양송전선 건설관련 갈등조정은 6개월간 진행된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2년간 운영된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보상 등 제도개선추진위원회’(이하 제도개선추진위원회)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갈등조정위원회는 밀양에서 현장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립적 제3자인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밀양을 대표하여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원치 않는 송전선 건설에 반대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현실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간사들의 지원하에 발족 및 운영되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법을 개선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취지하에서 구성되었다. 사업당사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역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그동안 한전이 송전선과 철탑 건설 과정에서 보여준 관행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역량 부족과 유연한 정책결정을 위한 조직문화의 부재 등으로 합의형성을 위한 기회들을 놓치곤 하였다.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밀양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송전선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란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보상법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에서도 참여하였다는 점도 갈등조정위원회와는 다른 형태와 성격 및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갈등조정과정과 제도개선과정을 구분하여 구성배경과 진행과정, 그리고 그 합의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I. 밀양갈등조정위원회

정부와 한전은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0년부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경남 북부 지역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은 2011년 말까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90.5km의 구간에 철탑 162개를 세우는 것으로, 그 중 2구간에 해당하는 경남 양산에서부터 밀양시와 창녕군 일원에 123개의 철탑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2005년 12월 밀양지역 경과지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의 절차상 문제, 재산권 및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밀양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다.

밀양 765kV 건설사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밀양시장의 중재로 한전과 주민 간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하여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의 주도하에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0년 6월 25일 송·변전 설비에 따른 보상법 추진 등 5개항에 대한 부분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¹⁾

1. 이해당사자

2009년 진행된 갈등영향분석에 따르면,²⁾ 주요 이해당사자는 송전선로 사업자인 한전, 반대대책위, 지방정부(밀양시 및 경과지 해당 5개 면), 중앙정부(지식경제부, 환경부), 정치권, 환경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1) 이선우·홍수정, 2012, “송·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조정위원회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2호, 183-212쪽.

2) 이선우·이강원·홍수정·강영실, 2009,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

2. 쟁점

갈등의 주요 쟁점은 갈등 발생의 원인, 경과지 선정 및 변경, 지가 하락에 대한 우려, 사업추진방식, 관련 법제도 준수 및 개선, 당사자 간 태도(감정), 전자계 위험 여부 등 사실관계라 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 쟁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이해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주요 쟁점별 이해관계자 입장 및 이해³⁾

쟁점	한전	대책위	밀양시	지역정치인	중앙정부	환경단체	
갈등발생 주요요인	입장	지가보상 한계	일방적 사업추진	사전대처 미흡	무리한 사업추진	주민 비선호 공익사업	중앙 집중적 전력공급방식
	이해	· 재원/제도 미비 · 제한된 자원의 최적 분배	· 주민참여미흡 · 지가 하락 · 재산권/환경권/ 건강권 보장	· 주민과 협의부족 · 주민 이해충족	· 추진과정 문제 및 재산손실 큼 · 주민 이해충족	·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 지역주민에게 희생 전가 · 정책전환 및 주민안전
경과지 선정	입장	최적 노선	한전의 편익적 노선	일부 수정 필요	일부 수정 필요	적법 절차로 승인된 노선	-
	이해	· 주민요구 반영/ 민원 최소화 고려함 · 안정적인 전력 공급	· 주민의견 미반영 및 선정근거취약 · 경과지선정시 실질적 참여	· 주민요구 반영 미흡 · 주민이해충족	· 의견수렴 미진 · 주민이해충족	· 법 절차 추진 · 효율적인 전력 공급	-
경과지 변경	입장	승인 후 불가 / 밀양 관내 변경	청도군 우회 및 주민피해최소화 위한 노선 변경	청도군 우회 및 주민피해최소화 위한 노선 변경	주민피해최소화 위한 노선변경	한전과 주민 간 협의	-
	이해	· 경과지 변경에 따른 추가민원 발생 우려 · 안정적인 전력공급	· 잘못된 경과지 선정 · 재산권/환경권/ 건강권 보장	· 주민요구 반영 미흡 · 주민이해 충족	· 주민요구 반영 미흡 · 주민이해 충족	· 중앙정부 소관 사항 아님 · 안정적인 전력 공급	-
지가보상	입장	규정 내 보상 / 간접보상	실질적 보상 / 직접보상	현실적 보상 위한 노력	현실적 보상 위한 노력	규정 내 보상	-
	이해	· 법적/재원 한계 · 제한된 자원의 최적분배	· 지가하락 수용 불가 · 재산권보장	· 지가보상 미흡 · 주민이해 충족	· 지가보상 미흡 · 주민이해 충족	· 법적/재원 한계 · 효율적 전력공급	-

3) 이선우 · 이강원 · 홍수정 · 강영실(2009) 재구성

쟁점	한전	대책위	밀양시	지역정치인	중앙정부	환경단체	
관련법상 절차 준수	입장	적법절차/ 정당함	위법/절차적 정당성 결여	절차 준수/ 추진 시 주민협조 필요	절차 준수/ 일부 제도적 결함	적법절차/ 정당함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이해	· 관련법/절차 준수함 · 안정적 전력공급	· 주민설명회 등 형식적/졸속 진행 · 주민의 실질적 참여 및 재산권 보장	· 착공 시 주민협의 중요 · 주민이해 충족	· 관련 절차 주민 요구 반영 미흡 · 주민이해 충족	· 관련법/절차 준수함 · 효율적 전력공급	· 주민요구 반영 한계임 · 주민안전/ 재산권 보장
사업추진	입장	착공과 주민 협의 병행	일방적 추진	선 협의 후 추진	선 협의 후 추진	-	-
	이해	· 공사추진&주민 협의 둘 다 중요 · 안정적 전력공급	· 협의 주장하나 착공을 추진함 · 오식 행위 아닌 실질적 협의	· 주민협의 미흡 시 갈등 증폭됨 · 주민이해 충족	· 주민협의 미흡 시 갈등 증폭됨 · 주민이해 충족	-	-
태도 (감정)	입장	대책위이기주의 &불신	한전의 밀양 주민무시&불신	상호 협력적 태도 결여	상호 협력적 태도 결여	-	-
	이해	· 대책위의 수용 불가한 백지화 주장 · 대책위의 주민 접촉 방해 · 한전의 상향/ 노력 수용	· 한전의 경과지 원안고수 · 한전 책임자와 실무자간 이견 발언 불일치 · 협의 논리에 따라 한전 대응 달라짐 · 주민의 요구/ 처리 수용	· 한전 원안고수/ 대책위의 백지화 고수 · 상호신뢰/협력	· 한전 원안고수/ 대책위의 백지화 고수 · 상호신뢰/협력	-	-
전자계 피해	입장	전자계 피해 없음	전자계 피해 있음	전자계 피해 우려 해소 필요	전자계피해 우려 해소 필요	전자계피해 없음	전자계피해 우려
	이해	· WHO규정준수 · 안정적 전력공급	· 전문가 간 이견 · 미디어의 암발생 보도 · 한전기준은 전자 계장기노출 제한 기준 아님 · 주민건강/안전	· 한전 홍보만으로 주민우려해소 어려움 · 주민안전	· 한전의 국제적 권고치 준수 주장 만으로 주민 설득 어려움 · 주민안전	· WHO 입장 및 기준 준수함 · 안정적 전력공급	· WHO규정미흡 · 주민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	입장	일부 필요	전면 개선	일부 필요	일부 필요	필요성 의문	전면개선
	이해	· 자기보상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 일면 동의 · 재판마련 타 공의 사업과 형평성, 효과 등 검토 필요 · 안정적 전력공급, 주민수용성 제고	· 경과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보상제도 미비에 대한 불만 · 전력공급 시 주민의 실질적 참여 및 재산권/ 환경권 보장	· 보상관련법/ 제도 미비 ·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수용성	· 전력공급이 공의 사업이지만 주민 에게 피해 전가 문제임 · 주민이해 충족	· 경과지 선정 시 주민설명회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됨 · 보상법 제정은 타 공의사업과 형평성 전기요금 연동 등 현실적 으로 어려움 · 안정적/효율적 전력공급	· 현행 제도 내 같은 필연적 · 정책전환 및 주민이해 충족

3. 조정목적

범밀양시민연대는 교착상태에 빠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9월 1일 ‘전력사업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에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조정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10월 이동신문고에 제기되었던 ‘765kV 신고리~북경 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지역주민과 한전, 밀양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보상 문제 등 현안들을 협의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조정서에 서명하였으며,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정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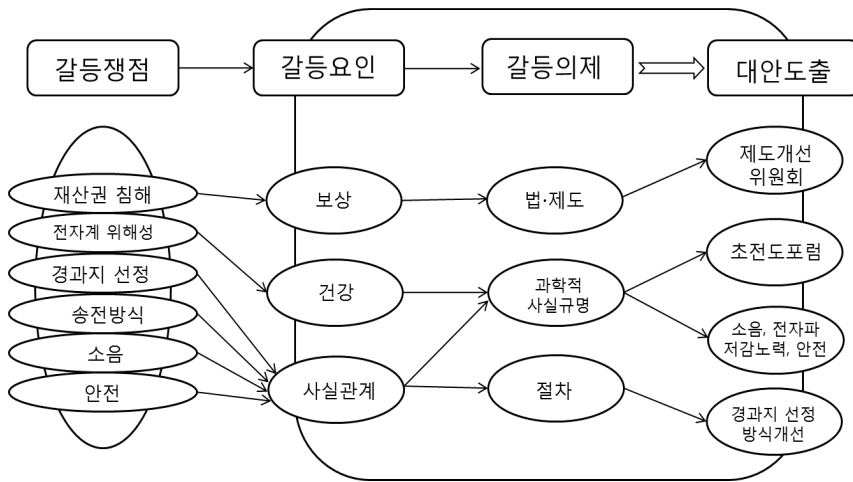
4. 진행과정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협의를 실시해 지역주민과 한전, 밀양시 등 관계기관들이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와 함께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추진했으나 한전 등이 갈등조정 절차가 길어지면 사업이 지연(지연보상금 590만 원/일)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부터 이해관계자들과의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갈등조정위원은 주민 추천 3명, 한전 추천 2명, 관계기관인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밀양시 추천 각 1명,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 추천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가 추천한 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위원회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되, 위원장의 요청으로 1차례에 한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⁴⁾

갈등조정위원회의 활동 과정과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복잡하게 얽힌 갈등이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보상, 건강, 사실관계 등의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되었고, 이를 법·제도, 과학적 사실규명, 그리고 절차 등으로

4) 이선우·홍수정(2012).

갈등을 의제화 하였다. 그리고 공동 사실관계확인 워크숍을 포함하여 다양한 갈등조정방식을 통하여 갈등당사자들 스스로 대안을 개발하고 선택하도록 도왔다. 나아가 모든 조정의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되어 관련기관에 제도개선 권고안의 형태로 전달되었다.⁵⁾



〈그림〉 갈등조정과정⁶⁾

5. 합의안 및 효력

갈등조정위원회는 2010년 6월 25일 경남 밀양시청에서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⁷⁾ 이후 2010년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전, 주민, 경실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양산과 밀양, 창녕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설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미비점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제도개

5) 이선우·홍수정(2012).

6) 이선우·홍수정(2012).

7) 『한겨레』, 2010. 7. 5. 10면, 최상원, “송전선로 ‘고무줄 보상’ 사라질까”

선추진위원회는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2011년 정기국회 전까지 보상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 외 송전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여 각각의 입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였고, 송전선로건설과 관련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건강을 위해 향후 초전도케이블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송전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⁸⁾

6.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갈등조정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정활동의 결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갈등조정위원회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절차 및 선하지 보상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첫째,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경과지역 선정 시 협의 주체에서 배제됐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한전이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해 놓음으로써 관련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셋째,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한전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전압별로 보상 범위를 차등화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을 받는 765kV 송전선로 선하지에는 매수보상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그동안 한전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되던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전원개발촉진법’에 그 근거·기준 및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 및 공고를 거부해 국책사업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장이 열람 및

8) 이선우·홍수정(2012).

셋째, 주민대표들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송전선 관련 갈등이 밀양을 끝으로 종식되기를 희망할 정도로 이타적이었으며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바로 이 점 때문인데, 주민대표들은 간접보상으로 발생하는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을 우려하였으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상법을 개선하여 주민 간 불화도 방지하면서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넷째, 당시 갈등조정과정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관심과 지원은 미미하였으며 한전 역시 대표로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합의할 수 있는 협상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부여하지는 못하였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당시 차후 보상법이 마련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직접 보상비 차원에서 일정 금액¹⁰⁾을 공탁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들과 합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나 한전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해 기회가 무산되었다.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경우, 주무부처의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시 지식경제부에서는 한전 측에 문제해결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담당사무관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회의진행과정을 챙기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회의 과정에서 사무관의 합의권한이나 의견제시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결정이나 합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의 담당자(예: 국장)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대표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합의된 대안들이 차후 책임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였다.

II. 제도개선추진위원회

1. 진행과정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갈등조정위원회가 끝났음에도, 송전선로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원활한 송전선로 공사를

10)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한 180억 보다는 적은 금액이었다.

위해 조정위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 11월 17일 발족식을 가지고 2년여에 걸쳐 운영되었다.

2. 구성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의 지원 아래, 지식경제부 1명(국장), 국토해양부 1명(국장), 한전 추천 1명, 주민 추천 2명, 관련 전문가 2명, 소비자 단체 1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명,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3. 목적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위해서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각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전)와 협조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객관적인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보상방안 마련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4. 산출물

송·변전 설비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범위를 두고 제도개선추진위원회 내부에도 이견이 있어 보상법제화가 지연되고, 밀양 주민의 분신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송·변전 설비 건설 관련 피해범위 및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제도개선추진위원회 내에서 도출한 주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의견서가 19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송·변전 설비 건설과 관련한 피해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송·변전 주변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송·변전 설비 건설 관련 민원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상 방안(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송·변전 설비 건설

관련 보상은 기존 선하지 보상 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송·변전 설비 건설에 따른 지가하락 차액을 보상하는 ‘차액보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송·변전 설비 관련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5. 법안 전달 지연 이유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해소를 위해 2009년에는 갈등조정위원회, 2010년에는 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며 2011년에는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연구용역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모법이 제정되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2014년 7월 22일 제31회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갈등 해소를 위한 과정과 법안 도출의 성과에 있어 기간의 간극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측면을 들 수 있다. 우선,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개선추진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인 보상 관련 내용이 다시 갈등의 발단이 되었다. 이해당사자가 완전한 동의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보상안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이는 다시 정치권의 문제로 확장된 것이다. 한편, 보상안이 확정되거나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송전탑의 공사를 재개·강행한 것이 더 큰 갈등을 불러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 간 더욱 심한 감정 악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주민들은 한전 본사에서 농성을 하거나 국토대장정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밀양 주민이 음독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하였다.

위 법과 시행령이 여러 이해당사자의 노력과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상호간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 개선된 제도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저항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6. 시사점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용을 두고 단순히 성공 또는 실패를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건이나 운영결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첫째,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조정과정을 통해 보상법을 개선한 후 직접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민대표들의 뜻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부처 및 기관에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을 권고함으로써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일련의 조정과정을 거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이란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에 의뢰하여 조정과정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민간영역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하여 진행된 갈등조정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간여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밀양사례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송전선이 지나가는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어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구성도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수십 년을 끌어온 송전선 관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법령개선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밀양의 특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전국 송전선 관련 갈등을 겪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제도개선추진위원회에 참여한 밀양주민대표들을 지역 내 비판세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으며 지역의 여론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여 차후 주민대표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도 아쉬운 점이다.

셋째, 송·변전 설비 건설 관련 피해범위 및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처음으로 송·변전 시설물의 입지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치하락의 정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은 매우 뜻깊은 과정이었다. 이 연구에 따라 보상법이 마련되었고 보상법 내용 합의를 위한 객관적 근거도 제시되었다.

넷째, 공공갈등은 국회와 담당부처의 관심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정치인이 이해관계자들의 중간에 서지 않고 일방의 편을 들면 주민 간 갈등과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리고 갈등조정과정에서 정부의 갈등해결 의지를 판단하는 표면적 기준 중 하나는 회의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직급이나 기관장의 관심여부이다.

밀양송전선 건설의 백지화주장이 본격화되고 개별정치인의 간여로 인하여 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진행 중임에도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참여 주민대표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형성되어 상처를 주기도 하였다.

한편, 국회와 담당부처인 산업부가 제도개선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법령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송·변전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그 법에 근거하여 밀양사태 해결을 위한 보상협약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가장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령안을 전달받아 이를 법제화하여야 할 국회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지원하였던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속했던 정당들도 복잡한 상황 속에 있어 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산출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19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에도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역시 밀양송전선 갈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이 흐를 때, 한전은 한전대로 송전선 건설기간이 촉박해 공사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제도개선추진위원회 활동의 무의미를 주장하거나 법령 마련 시까지 공사를 멈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면서 밀양의 분위기가 냉각되었고 결국에는 기존의 반대대책위원회를 대신한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Ⅲ. 종합결론

대부분의 공공갈등에서 지역주민들의 질문 중 사업자 측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왜 우리 지역인가?”이다. 밀양의 경우에도 경과지 선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물론 설명하였으나 설득력을 갖지 못하였다. 경과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갈등발생의 정도를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왜 이 곳으로 송전선이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갈등의 정도는 첨예해지지 않을 것이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자 측이나 정부 측의 최고관리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전의 경우, 마치 송전선 건설만이 목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어떻게 송전하는가에 대한 문제해결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자주 발생하는데 송전선 건설도 이와 같아서 765kV 송전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저항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765kV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345kV를 보완하여 송전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주민들과 대안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긍정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갈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정치인과 지역정치이다. 밀양의 경우, 지역정치가 갈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정치인의 관여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치인 자신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다수의 여론을 따르는 것이 대의정치의 원리이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의 의지와는 다르게, 주민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가와는 관계없는 일방적인 타 지역 정치인들의 관여는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송전선 관련 갈등은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근거한 문제해결의 대안탐색과 선택은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해소보다 합리적이고 실행력이 높을 수 있다. 현재처럼 전기생산지와 수요지가 다르다면 송전선 관련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송전선 건설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전력소비 지역별로 발전소를 지어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가령, 고리, 울진, 당진, 영광 등지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과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못해 서울 중구 주민들에게 전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서울 중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시청 지하에 LNG 발전소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서울 중구 내 아파트 단지마다 발전소 건설을 의무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기를 희망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 Persuasion & Rhetoric Report』 과월호 목차 •

<p>2013년 3월호 (창간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음을 얻는 조정기법 2. 법정의 수사학 – 설득을 위한 변론과 판결 3. 기고 : 경청으로 시작하여 합의로 매듭짓기
<p>2013년 4월호 (vol.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득을 위한 말하기 전략 2. 설득을 위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3.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기법과 메시지 구성
<p>2013년 5월호 (vol.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대방의 유형에 따른 설득의 전략 2. 난감한 상황에 대처하는 현명한 설득법 3. 대화와 물음의 新수사학
<p>2013년 7월호 (vol.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한 조정 – 과정에서 결과까지 2. 그리스신화 속 갈등 조정 3. 한비와 귀곡자의 수사학 4.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의미와 이념
<p>2013년 8월호 (vol.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리스킨(Leonard L. Riskin)의 조정인 유형 분류에 따른 설득의 전략 2. 역사의 순간에서 배우는 설득의 지혜 - 고려 최고의 외교가 서희와 남아프리카 화해의 상징 넬슨 만델라를 중심으로 - 3. 공자와 맹자의 인(仁)의 수사학 4. 미(美) 공공갈등 분야의 성공적 ADR 사례
<p>2013년 10월호 (vol.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을 위한 공간활용의 전략 2. 고대 그리스 문학의 효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속 설득의 순간 3. 질문의 수사학 4. 일본의 협상 문화로 짚어본 산업폐기물 분쟁 조정사례 5. 기고 : 법원 조정제도의 현황과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를 중심으로 -
<p>2013년 12월호 (vol.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을 위한 첫걸음 – 갈등분석 2.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설득의 리더십 (上) - 『태조실록』과 『세종실록』을 중심으로 - 3. 스몰토크(small talk)의 수사학 4. 중국의 법문화로 살펴본 인민조해(人民調解) 제도의 특징 5. 기고 : 언론사건 조정의 특성과 바람직한 조정기법

•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 Persuasion & Rhetoric Report』 과월호 목차 •

2014년 2월호 (vol.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고 : 한국 사회 갈등 원인에 대한 일고(一考) 2. 감정을 이용한 설득과 조정 스피치 3.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의 리더십 (下) - 『광해군일기』와 『정조실록』을 중심으로 - 4. 미국 또래조정(Peer Mediation)의 현황과 사례
2014년 4월호 (vol.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득을 위한 경청(傾聽) 2. 상대를 움직이는 논증의 기술 (I) 3. 국가 간 협상의 지혜 - 루이지애나와 알래스카 판매 협정을 중심으로 - 4. 프랑스의 사전 갈등예방 기구, CNDR(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현황과 사례 5. 기고 : 노자가 전하는 갈등해결의 지혜
2014년 6월호 (vol.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과 협상전략 2. 상대를 움직이는 논증의 기술 (II) 3. 『줄리어스 시저』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 - 브루터스와 안토니의 연설을 중심으로 - 4. 한 통의 편지가 단초가 된 미(美)·소(蘇) 간 군축협상 5. 기고 : 장자의 우언(寓言)·중언(重言)·치언(訶言)의 은유법
2014년 8월호 (vol.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의적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의 기법 2. 설득을 위한 논쟁 3. 광고 카피를 통해 본 수사학적 표현술 - 문채(文彩)를 중심으로 - 4. 기고 : 분쟁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 고찰
2014년 10월호 (vol.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노를 다스리는 설득전략 2. 상대의 설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어 기술 3. 탐사보도에 나타난 수사학 - 〈PD수첩〉 ‘광우병’편 보도를 중심으로 - 4. 통합을 이끈 링컨의 설득과 수사 - 〈게티즈버그 연설〉을 중심으로 - 5. 기고 : 한국사회의 공공갈등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2014년 12월호 (vol.1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의 유형과 갈등해결전략 2. 설득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논리적 오류와 극복방안 3. 삼국지를 통해 본 설득과 협상의 지혜 - 적벽대전(赤壁大戰)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 4. 왜 조정을 하는가? 5. 미국 로스쿨 ADR 교육의 현재 - 페퍼다인대 Straus Institute를 중심으로 -

•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 Persuasion & Rhetoric Report』 과월호 목차 •

2015년 봄호
(vol.14)

1. 조정에서 전략적 개입으로서 질문
2.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대화의 기술
3. 조선 역관에게 배우는 협상과 설득의 지혜
4. 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분쟁 해결의 방법과 지혜

2015년 여름호
(vol.15)

1. 우리문화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조정전략
2. 갈등 당사자간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조정기법
3. 조정·중재를 성공으로 이끄는 ‘프레이밍’
4. 맹자(孟子)에게 배우는 설득과 수사
5. 성공적인 공공갈등 해결의 방법과 지혜
- 경북울진 신화1리 원전관련 갈등조정 사례 -



안 내

※ 격월간으로 발간하던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를 2015년부터는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라는 제호로 연 4회 걸쳐 발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의 정보자료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자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02-397-30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